



김선종(호남신대)

## 1. 머리말

성은 인간에게 본질적이다. 인류 역사는 성행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유지된다. 사람이 죽은 후의 성과 결혼의 여부 역시 흥미로운 관심사이다(눅 20:27-40).<sup>1)</sup> 사람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이 생물학과 의학뿐 아니라,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 문학, 사회학, 법학, 철학, 예술과 윤리학 등 여러 학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sup>2)</sup> 좁은 뜻

---

\* 이 글은 2016년 10월 21-22일에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 제45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귀한 논찬을 해주신 강승일 박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1) B. Lang, "No Sex in Heaven: The Logic of Procreation, Death, and Eternal Life in the Judaeo-Christian Tradition", A. Caquot, S. L. gasse, M. Tardieu (eds.), *Mélanges bibliques et orientaux en l'honneur de Mathias Delcor* (AOAT 215;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85), 240.

2) J. Pitt-Rivers, *The Fate of Shechem or the Politics of Sex: Essays in the Anthropology of the*

의 성(sex)은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 주고, 넓은 뜻의 성(sexuality)과 관련된 제도로서의 가족은 사람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성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성폭력, ‘위안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성은 간통법, 동성애, 결혼 제도 등에서 아직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다. 이처럼 성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며,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인간과 함께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성에 대한 관심사를 신학에 제한할 때,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주된 관심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 신학을 비롯하여 성서학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구가 특정 주제나 방법론에 제한되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도 하다. 때로는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어 백과사전적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sup>3)</sup> 교회의 현장에서는 성의 문제를 다루기 거북스러워하는 듯 보인다. 많은 경우 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사회의 동일한 현상이다.<sup>4)</sup> 성경은 성을 행복과 거룩함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동시에(창 2; 레 18-20; 아가) 악을 낳기도 하는 것으로 본다(신 22:21).<sup>5)</sup>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성을 금기시하며, 때로는 성을 용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양

---

*Mediterranea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T. Frymer-Kensky, "Law and Philosophy: The Case of Sex in the Bible", *Semeia* 45(1989), 89-102;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서울: 세창출판사, 2009); A. Comte-Sponville, *Le sexe ni la mort: trois essais sur l'amour et la sexualité* (Paris: Albin Michel, 2012); 미와 교코, 『성의 미학: 서양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진중권 역), (서울: 세종서적, 2008).

- 3) R. M. Davidson, *Flame of Yahweh: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는 무려 844쪽에 이른다. 그의 방법론은 정경적 접근으로, 성윤리에 대해 규범적인 가르침을 주지만, 때로는 평면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한다.
- 4)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정금나, 김은정 역), (서울: 삼인, 2002), 104-111. 원제는 Kathleen L.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6).
- 5) 장일선, 『구약성서와 현대생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60.

극단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몰래 성에 탐닉하거나, 성을 친한 것으로 여겨 금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다. 성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동양이나 서양의 교회에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은 성문제에서 여성보다 훨씬 자유로웠지만, 특히 조선시대 이후 유교와 성리학의 이념을 가지고 여성에게 일방적인 정조를 강요하기도 했다.<sup>6)</sup> 많은 그리스도인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 아래 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서양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사람들은 성을 죄악시하여, 원죄, 타락, 죽음과 결부시키기도 하였다.<sup>7)</sup>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의 문제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었다.<sup>8)</sup> 18세기 웨이커교도(Shakers)의 창시자 앤 리(Ann Lee)는 성행위에 혐오감을 느껴 결혼 후에도 성교를 거부하였다.<sup>9)</sup> 모든 사람은 이러한 양 극단의 스펙트럼 안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이해는 과연 무엇일까?

이 글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현상에서 출발하여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의 신학을 기술할 것이다. 성에 대한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개인과 공동체는 성을 통하여 자본과 권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

6) 이영자, “성과 사랑”, 한국여성 연구회, 『여성학 강의』(서울: 동녘, 1995), 89-118; 이순구,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서울: 청년사, 2006), 163-187;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서울: 학지사, 2007), 56-62; 주진오 외,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서울: 푸른역사, 2013)를 보라.

7) 중세에는 타락 이전 여자의 젖가슴을 선악과에 비유하거나, 인간의 원죄를 성교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한스 페터 뒤르, 『음란과 폭력: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의 역사 역사』(최상안 옮김), (서울: 한길사, 2003), 233, 791을 보라. 원제는 Hans Peter Duerr, *Der Mythos vom Zivilisationsprozeß 3. Obszönität und Gewalt*(Frankfurt: Suhrkamp, 1993).

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앞의 의지』(이규현 역), (서울: 나남, 1992), 114 등. 원제는 M.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Paris: Gallimard, 1998).

9) L. J. Kern, *An Ordered Love: Sex Roles and Sexuality in Victorian Utopia: The Shakers, the Mormons, and the Oneida Community*(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75.

경이 고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고착화된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삶의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고대 언어로 기록된 성의 프리즘을 통하여 기술된 의도와 함께 성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신학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함으로써 현실에서 벌어지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2. 성의 현실과 윤리

### 1) 성과 자본

기본적으로 성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취급한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이나 처신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성을 개인화하여 단지 개인윤리의 차원으로 치환할 때 성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문제가 단지 가해자 개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처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덮어 두려고 하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품화되는 것을 공리로 여긴다. 보드리야르(J. Baudrillard)는 사람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기호로 본다.<sup>10)</sup> 또한 인류학자와 문화사가의 관찰을 따르면 성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성의 문제는 철저히 돈

---

10)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원제는 J.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Paris: Gallimard, 1996).

11) 한스 페터 뒤르, *뫼글*, 34; 캐슬린 배리, *뫼글*, 161-209.

과 관련되어 있고, 물질문명과 연관되어 있다.

신학은 이러한 자본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성의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규범이 되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의무를 가진다. 성이 자본 및 물질문명과 관련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은 레위기 18장과 20장이다. 레위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다. 곧 과거와 미래 사이의 중간기 시대를 지나고 있다. 18장과 20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성의 차원을 말한다. 이 두 장을 포함하는 성결법전(레 17-26)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지 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데,<sup>12)</sup> 성이라고 하는 은밀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담고 있는 19장을 감싸고 있는 18장과 20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 18장 3절에 나오는 서문이다.<sup>13)</sup>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레위기 18장과 20장이 근친상간(18:6-20; 20:10-21), 동성애(18:22; 20:13), 수간(18:23; 20:15-16)의 성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변민족의 일반 풍속을 배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머물렀던 이집트의 성문화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성문화도 배우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 풍속은 단지 성의 문제와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자본과 종교의

12)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3)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경본문을 인용할 경우, 『개역개정』을 사용한다.

문제와 이어져 있다.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롯한 구약주변세계는 풍요 제의로 대변되는 선진 문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종교와 신화는 성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러한 종교는 사람에게 부와 행복을 약속했다.<sup>14)</sup> 곧 종교는 철저히 자본과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에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수간을 비롯한 신전 창기 등 성경이 묘사하는 구약주변세계의 음란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는 그들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한다.<sup>15)</sup> 왜냐하면 구약주변세계의 여러 법 역시 근친상간과 수간 등을 금지하는 점에서 그러하다.<sup>16)</sup> 따라서 성경이 묘사하는 주변세계의 성 문화와 그들이 행했던 실제의 모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약 성서는 자본과 성의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종교와 단절할 것을 말한다.

## 2) 성과 권력

이처럼 자본과 관련된 성은 권력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창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 나오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야기(창 12; 20; 26)는 성이 권력 및 자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관계를 개인의 차원에서 모형론(typology) 또는 원인론(etiology)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기들에는 가난해진 신앙의 선조들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던 가운데,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후 그에 대한 대가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sup>17)</sup> 그런데 이러한 성에 대한 착

14) J. P. Healye, "Fertility Cults", ABD 2, 792-793.

15) K. van der Toorn, "Cultic Prostitution", ABD 5, 510-513.

16) 또한 R. Albertz and R. Schmitt,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Levant*(Winona Lake: Eisenbrauns, 2012), 423.

17) M. Arnold, G. Dahan et A. Noblesse-Rocher (eds.), *La sœur-épouse*(Genèse 12, 10-20) (Lectio Divina 237; Paris: Cerf, 2010)은 유대교, 기독교 교부, 교회사에서 이 단락의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

취는 단지 이방인 권력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는 다윗과 밧새바의 사건이다.<sup>18)</sup>

그런데 성과 권력의 유착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할 이른바 ‘위안부’들을 대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군대가 진입할 때 성의 문제가 함께 일어나며, 철수한 다음에 비록 ‘위안부’들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집창촌의 형태로 남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힘이 성산업이라고 하는 자본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sup>19)</sup> 또한 전쟁 시에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성폭행이 자행된 기록도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성서에도 나타난다. 레위 사람의 첩 또는 둘째 아내( $w\ddot{a}h\ddot{u}b$ )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성폭행 사건은 내전으로 이어진다(삿 19-21).<sup>20)</sup>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앗수르와 바벨론의 정복 전쟁을 성폭력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방의 강대국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창녀로 묘사한다.<sup>21)</sup> 이러한 표현과 묘사는 단지 신학적 상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경험을 반영한다. 예언자들은 전쟁 시 적군이 민간인의 옷을 벗겨 굴복시키며 수치를 주는 모습을 그리는데(사 47:2-3; 나 3:5 등), 이것은 중세에 ‘전쟁의 권리’(Ius spoli)라는

18) 이것은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2013), 114의 표현이다. 또한 B. Burch, "Sexuality, Power, and Divine Judgment in the David-Bathsheba Story", 왕대일 역음, 『구약성서와 성』(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성서학연구소, 2000), 146-200도 보라.

19) 한스 페터 뒤르, 윗글, 481-500; 캐슬린 배리, 윗글, 161-209.

20) 이영미,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여성을 사례로", 『Canon&Culture』 18(2015), 95-126.

21) J. Day, "Adulterous Jerusalem's Imagined Demise: Death of a Metaphor in Ezekiel XVI", VT 50(2000), 285-309;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2010), 53-74.



다른 모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뒤르(H. P. Duerr)는 전쟁 동안 벌어지는 성범죄를 전쟁 수행자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신명기의 전쟁 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신 21:11-14).<sup>22)</sup> 이것은 권력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발휘하기 위해 성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예에 해당한다.<sup>23)</sup> 이처럼 성과 자본과 권력이 유착된 사례는 인류의 역사의 초기부터 나타난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형성은 결국 지식의 힘을 통해 형성되는데,<sup>24)</sup>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이러한 성이 지식과 결부되어 있는 사실을 말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ערום)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ערום)(창 2:25-3:1 전)

창조 질서에서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낙원에서 여자들이 벌고벗고 있었지만, 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5)</sup> 사람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된 것은 뱀의 간교한 지식에 굴복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sup>26)</sup>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의 벌거벗음이 수치와 관계되고, 더 나아가 죄와 관련된다(창 9:10-29; 레 18: 20). 사실 뱀이 간교하다고 할 때의 히브리어 ‘아름’(ערום)은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낱말이 칠십인경에서 ‘프로니모스’

22) 한스 페터 뒤르, *유클*, 487-497.

23) 양해림 외, 『색수열리타와 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9), 33.

24) 마크 포스터,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서울: 인간사랑, 1990), 94-102. 원제는 Mark Poster,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Cambridge: Polity Press, 1984).

25) C. McDannell and B. Lang, *Heaven: A Histor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62.

26) 월터 카이저, 『구약성경윤리』(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220. 원제는 Walter C.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Grand Rapids: Zondervan, 1983).



(φρόνιμος)로 번역되고, 또한 이 헬라이어 낱말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사용된다.<sup>27)</sup> 위의 창세기 본문은 (간교한) 지혜와 벌거벗음을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왜곡된 지식이 성의 왜곡 또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이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점은 성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יָדָה)가 ‘알다’라는 뜻과 함께 ‘성관계를 갖다’를 뜻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창 4:1; 삿 19:22, 25; 21:11-12 등). 구약에서 아는 것은 단지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자기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지 야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에서뿐 아니라, 성폭행의 문맥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삿 19:22, 25)은 이러한 성과 폭력, 압과 폭력 사이의 형이상학을 드러낸다.<sup>28)</sup> 결국 성이 왜곡되는 것은 절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지식과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성과 자본과 권력의 유착

위에서 성이 자본 또는 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성과 자본과 권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은 ‘왕의 규례’를 규정하는 신명기 17장 14-20절이다. 여기에서는 임금의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사항 세 가지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군마와 아내와 금은이다. 이것은 곧 권력과 성과 자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 가지가 임금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명한다. 반대로 임금이 해야 할 일은 율법 두루마리를 복사하여 언제나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그 율

27) HALOT, 883.

28)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서울: 나남, 2003)은 근대에 이성과 지식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폭로한다. 원제는 M.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Paris: Gallimard, 1976).

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왕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오경에서 임금의 존재와 자격, 또한 의무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솔로몬의 실정에 대한 후대의 반성을 반영한다. 솔로몬은 천 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으며(왕상 11:1-13), 많은 금은보화를 보유하고(왕상 10:14-25), 수많은 군마를 가졌던 것(왕상 4:26-28; 10:26-29)으로 신명기 역사가는 보도한다. 느헤미야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를 이방 여자와의 결혼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그 원흉을 솔로몬에게 돌린다(느 13:26). 물론 신명기 역사가는 자본과 권력의 측면에서는 솔로몬의 실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단지 성의 측면에서만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이었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왕상 11:1 진, 『공동』)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방 여자에 대한 언급 바로 뒤에 하닷을 비롯한 솔로몬의 대적을 언급하고(왕상 11:14),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10-11장에 나타나는 성과 자본과 권력의 남용이 결국 겨레의 분단을 가져오게 된 것을 암시한다. 11장 9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다고 말한다.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가 성과 자본과 권력의 유착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신명기 사가는 평가한다.

이처럼 성은 지식과 학문으로 가능해지는 자본 및 권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상호 조건화한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정치학과 사회학이 밝히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성서에 이미 나타나는데, 곧 사람이 자본 및 권력과 관계하는 데에는 그 배후에 성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신학의 차원은 현대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하듯이 이론화하기는 어렵다. 상호간의 직접적인 유기적인 인과 관계도 논증하기 어렵다. 이것은 현대 사회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고대인의 종교적 직관이 파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 자본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성찰이 정경 안에 집약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라이머-켄스키(T. Frymer-Kensky)는 우주의 질서에서 성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모습과 지위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말하며 이를 성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sexuality)이라고 부르며, 성의 배후에 있는 신학에 대해 밝히려고 시도하지 않는다.<sup>29)</sup> 그러나 독자들은 성과 자본과 권력이 메타신학(meta-theology)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직접적인 상호 관련과 영향을 논증할 수 없지만, 종교적 직관의 차원 또는 인류의 역사의 경험의 차원에서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다.<sup>30)</sup> 현대의 독자들이 성서에서 성과 자본과 권력이 직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하는 본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에서 이런 측면을 암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성서가 성과 권력과 자본이 각각 그리고 다함께 유착할 때 위험한 이유를 알려준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 17:19).

실제로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열왕기상 11장 9절은 명시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겔 16:26 등). 이것은 성과 자본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이들의 자기 확장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까지 이른다.<sup>31)</sup> 따라서 성경은 이들의 영향력을 제어할 것을

29) T. Frymer-Kensky, "Sex and Sexuality", ABD 5, 1146.

30) 메타 신학은 신학 배후에 있는 언어나 사상이 가능한 근거와 기능과 정당성을 따진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J. T. Granrose, "Normative Theology and Meta-Theology", *HTR* 63 (1970), 449-451을 보라.

31) 게오르크 짐멜, 『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길, 2013), 388. 원제는 G. Simmel, *The Philosophy of Money*(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1).

권고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성과 권력과 자본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사야 2장 7-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와 마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반대로 우상숭배로 이끌었다고 힐난한다. 미가 5장 10-1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마를 멸절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신다. 성경은 권력을 한 곳으로 수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산할 것을 요구한다. 참된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sup>32)</sup>

### 3. 성의 신학

#### 1) 사람의 성과 하나님의 성, 성의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

구약성서가 기술하는 성에 대한 인식은 구약주변세계의 문화나 종교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이해를 보여준다.<sup>33)</sup>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나 가나안 민족의 성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받는다. 광야에서도 바알브올과 음행한 사건을 배교로 규정한다(민 25). 따라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성의 관점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구약주변세계의 인간관과 신관에 비추어 살펴보고, 성과 관련된 사회와 가족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진술은 단지 특정한 문명이 묘사하는

32) M. Greenberg, "Biblical Attitudes toward Power: Ideal and reality in Law and Prophets", E. B. Firmage, B. G. Weiss and J. W. Welch (eds.), *Religion and Law: Biblical-Judaic and Islamic Perspectives*(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05.

33) W. Loader, *The Septuagint, Sexuality, and the New Testament: Case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LXX in Philo and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2004), 1; 한스 발터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문희석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6), 295. 원제는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0).

인간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를 창조한 신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은 곧바로 인간의 윤리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sup>34)</sup>

이를 위해 과연 구약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묘사하는 사람(אָדָם)은 성적으로 어떠한 존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태초에는 사람이 무성(asexual)과 양성(bisexual)과 자웅동체(androgyne) 중 어떤 상태였는가, 아니면 태초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창조되었는가와 관련된다.<sup>35)</sup>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교리/신학과 목회의 차원에서 필수적이다.<sup>36)</sup> 최근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해설성경(ZeBible)은 동성애와 관련된 구절인 레위기 20장 13절에 대한 해설에서 “레위기는 동성애 행위를 사형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단죄한다. 이러한 처벌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놀라움을 준다. 법은 변화했다. 도덕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이 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인간의 여러 과학은 동성애 경향에 대한 질문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까지 언급할 정도이다.<sup>37)</sup> 결국 성에 대한 신학의 차원과 목회의 차원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성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구약성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공식화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쿤틸렛 아

---

34) O. Keel and C.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trans. T. H. Trapp(Minneapolis: Fortress, 1992), 177–281 참조.

35) P. Trib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Philadelphia: Fortress, 1978), 15–23; 김선중, “칠십인역 장언 18:8; 19:15의 안드로퀴노스 –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 이해-”, 『성경원문연구』 31(2012), 47–65.

36) 허효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2010), 237–260;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종교문화연구』 23(2014), 227–276; 류성민,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이해: 미국과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5(2015), 1–44.

37) 김선중, “〈서평〉 ZeBible”, 『성경원문연구』 35(2014), 364.

즈루드의 ‘아웨와 그의 아세라’).<sup>38)</sup> 구약성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모성적 표현이 남아 있다(신 32:18; 사 42:14; 46:3-4; 49:14-15; 렘 31:15-20; 호 11:1-9; 잠 8). 이러한 남성신과 여성신의 존재를 믿은 민중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모성성을 보존한 성경은 신인동형동성론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בְּצַל מִיּוֹ כְּדְמוּתָאֵנוּ)에 따라 지음 받았다면(창 1:26),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에 상응하는 하나님 역시 남성신과 여성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와 상대자의 기능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야말로 ‘닮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39)</sup> 아담 역시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בְּצַלְמִי וּדְמוּתִי) 셋을 낳았던 것이다(창 5:3, 『새번역』).

구약주변세계에서는 신의 가계도(theogony)를 통하여, 신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며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한 신화는 자연스러웠다.<sup>40)</sup> 그런데 구약성서는 이러한 구약주변세계의 신화에 낫설다. 구약의 공식 종교는 하나님이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민간 신앙과 부단히 싸워, 하나님에게서 특정한 성(性)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남성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의 민중 신앙은 단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의 신학과 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유일신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sup>41)</sup> 이스라엘 종교가 유일신 또는 단일신적 세계관으로 전

38) W. G. Dever,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2005);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40(2011), 123-144.

39) W. R. Garr,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Humanity, Divinity, and Monotheism*(Leiden – Boston: Brill, 2003)을 보라.

40) J. Day,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JSOTS 2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1) E. Bons et Th. Legrand, *Le monothéisme biblique: Évolution, contextes et perspectives* (Lectio Divina 244; Paris: Cerf, 2011).

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신들이 가지고 있던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역할까지 야웨 하나님에게 흡수되었다. 따라서 모세, 이사야, 에스겔 등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장면에서 하나님은 성기가 위치하는 허리 아래로는 그 모습이 결코 묘사하지 않는다.<sup>42)</sup>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과 관련된 성과 유일신론의 관계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역동성을 보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는 은유적 해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간의 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고, 신약 역시 그리스도와 백성의 관계를 위해 아가서를 인용하지 않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혜문학으로서의 아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육체적 사랑을 긍정하며,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친다.<sup>43)</sup>

이처럼 성이 사람과 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원을 살펴본다면, 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그러나 간음이나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문제나, 가족제도로 대표되는 성(sexuality)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근친상간의 문제(레 18; 20)는 결국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문제였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단지 근친상간과 관련된 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sup>44)</sup> 구약에 나타나는

42) T. Fymer-Kensky,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New York: Fawcett Columbine, 1992), 188.

43) C. Uehlinger, "Cantique des cantiques", T. Römer, J.-D. Macchi et C. Nihan (éds.),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Genève: Labor et Fides, 2009), 619-631.

44)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 11(2001), 27-48;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23(2007), 120-146 등을 보라.



일부다처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여러 아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주로 힘과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다.<sup>45)</sup> 이것은 성과 권력의 관계를 뒷받침한다. 성서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성의 문제가 공동체의 유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차원으로만 여겨질 때 발생하는 위험을 경고한다. 성경은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의 문제를 가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2) 성의 양면성

이러한 성의 현실은 구약성서에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월경 가운데 있는 여자와의 성행위(레 18:19), 창녀와의 성관계(신 23:18; 잠 5), 수간(출 22:18; 레 18:23; 20:15-16; 신 27:21)과 근친상간을 금지(레 18; 20)하는 것은 반대로 그 규정이 기록된 시대에 그러한 성 풍습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구약성서가 이러한 성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단지 그릇된 욕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신학적으로 이해한다. 월경하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규정하고(레 20:18), 이방 여자와의 음행은 이방 신과의 음행으로 신학화되며,<sup>46)</sup> 짐승과의 교접은 자연의 풍요를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이것은 단지 성서와 성서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중세 시대에도 셸라-나-기그(Sheela-na-gig) 여신의 나

45) 월터 카이저, *룻*, 209-210.

46) J. Cook, "אֵלֶּה זָרָה(Proverbs 1-9 Septuagint): A Metaphor for Foreign Wisdom?", *ZAW*106(1994), 458-476; 이희학,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와 '이방계집'의 번역 문제: 잠언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1(2007), 7-33; 천사무엘, "잠언에 나타난 음녀의 정체성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2011), 5-26 등을 참조하라.

47) R. Albertz and R. Schmitt, *룻*, 422-424.

체상을 교회에 조각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나체의 여자들이 악귀를 물리쳐준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따라서 모든 왜곡된 성행위들이 나름대로의 민간의 신학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약성서는 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에게 내려진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다(창 1:22, 28).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행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면에서 성행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을 이행하는 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제사장 문서에 해당하는 레위기의 산모법을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레 12). 이것은 출산으로 인한 출혈이 산모를 죽음으로 이끌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곧 성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sup>49)</sup>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 12장을 비롯한 다른 본문에서 흔히 '속죄제'로 옮겨지는 '핫타아트'(חַטָּאת)에 대한 번역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속죄제'라고 번역할 경우 아이를 낳은 산모가 죄를 지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밀그롬(J. Milgrom)은 '속죄제'를 '정결제'로 번역하여, 피를 흘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산모가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sup>50)</sup> 그래서 산모가 남자 아기나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는 이유로 40일이나 80일을 일반인들에게서 격리시키는 것을 일종의 출산휴가로 여기는 현대적 이해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sup>51)</sup> 이러한 점에서 속죄제를 일종의 통과제의로 보는 경우도 있다.<sup>52)</sup> 그런데 또

48) 한스 페터 뒤르, *뵘*, 60, 110, 190, 611의 각주 8.

49) A. Marx, "L'impureté selon P", *Bib* 82(2001), 363-384.

50) J. Milgrom, "Sin-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1971), 237-239.

51) 김선중, "〈서평〉 *ZeBible*", 363.

52) A. Marx, "Sacrifice pour les péchés ou rite de passage? Quelques réflexions sur la fonction du 'hattat'", *RB* 96(1989), 27-48. 이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는 J. Milgrom, *Leviticus 1-16* (AB 3; New

한 흥미로운 점은 레위기에서 성은 땅으로 대표되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근친상간을 비롯한 그릇된 성행위는 땅을 더럽히는데, 더럽혀진 땅은 그러한 성행위를 한 사람들을 내어 쫓는다는 사상이 그러하다(레 18:24-29; 20:22).<sup>53)</sup>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성의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와 혼란스러움이 단지 개인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파악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땅(민 5:3; 35:34)이 성의 문제로 더럽혀질 때, 그 혼란의 원인을 추방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종교인들의 신학적 통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성과 자본과 권력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 맺음말

구약성서에서 성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성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성을 통하여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성을 통하여 타락하고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은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에서 성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신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마 6:24).

사람의 성과 몸은 상품화해서는 안 되며, 힘으로 얻어서도 안 된다. 구약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포기의 신학(theology of relinquishment)을 말한다.<sup>54)</sup> 그러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금욕주의를 무조건적으로

---

York: Doubleday, 1991), 289-292를 보라.

53) 김선중, "성경 법전의 땅", 『Canon&Culture』 5(2011), 117-144.

54) 이 표현은 M. A. Neal, *A Socio-Theology of Letting Go: The Role of a First World Church Facing Third World Peoples* (New York: Paulist Press, 1977), 103-111에서 따온 것이다.

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구약의 지혜자들은 사람이 선과 악, 성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성의 주인이 되어 성을 다스릴 것을 요청하는데(창 2-3; 아가),<sup>55)</sup>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헌이 지혜자들의 세계관을 거쳐서 정리되었다고 하는 쉐퍼드(Sheppard)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다. 성의 주제가 오경의 고대 문헌과 성문서의 후기 문헌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56)</sup> 인류의 역사는 곧 성의 역사이며, 성은 인류 사회의 현실과 건강함의 척도를 반영한다.

## 5. 참고문헌

- 강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40(2011), 123-144.
- 게오르크 짐멜, 『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길, 2013).  
원제는 G. Simmel, *The Philosophy of Money*(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1).
- 김선중, "성결 법전의 땅", 「Canon&Culture」 5(2011), 117-144.
- \_\_\_\_\_, "칠십인역 잠언 18:8; 19:15의 안드로키노스 -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인간 이해-", 「성경원문연구」 31(2012), 47-65.
- \_\_\_\_\_, "〈서평〉 ZeBible", 「성경원문연구」 35(2014), 351-369.
-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사랑과 평등과 공평의 윤리", 「종교문화연구」 23(2014), 227-276.
- 류성민,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이해: 미국과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5(2015), 1-44.
- 마크 포스터,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서

---

55) L. Alosó-Schökel, "Sapiential and Covenant Themes in Genesis 2-3", J. L. Crenshaw (ed.),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 (New York: Ktav, 1976), 468-480.

56) G. T. Sheppard, *Wisdom as a Hermeneutical Construct* (BZAW 151; Berlin: W. de Gruyter, 1980).

- 을: 인간사랑, 1990). 원제는 Mark Poster,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Cambridge: Polity Press, 1984).
-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앎의 의지』(이규현 역), (서울: 나남, 1992).  
원제는 M.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1: La volonté de savoir*(Paris: Gallimard, 1998).
- \_\_\_\_\_, 『광기의 역사』(이규현 역), (서울: 나남, 2003). 원제는 M.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Paris: Gallimard, 1976).
- 미와 교코, 『성의 미학: 서양미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진중권 역), (서울: 세종서적, 2008).
- 양해림 외, 『섹슈얼리티와 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9).
- 왕대일 엮음, 『구약성서와 성』(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성서학연구소, 2000).
- 왕대일, "레위기 18장의 가족법 재고", 『구약논단』11(2001), 27-48.
- 월터 카이저, 『구약성경윤리』(홍용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원제는 Walter C. Kaiser, *Toward Old Testament Ethics*(Grand Rapids: Zondervan, 1983).
- 유연희, "성서의 성(性):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 『한국기독교 신학논총』67(2010), 53-74.
- 윤가현, 『성 문화와 심리』(서울: 학지사, 2007).
- 이순구,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서울: 청년사, 2006), 163-187.
-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160(2013), 9-42.
- \_\_\_\_\_, "전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추방경험과 해방을 위한 기억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과 사사기 19-21장의 성폭력 피해

- 여성을 사례로", 『Canon&Culture』 18(2015), 95-126.
- 이영자, "성과 사랑", 한국여성 연구회, 『여성학 강의』(서울: 동녘, 1995), 89-118.
-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서울: 세창출판사, 2009).
- 이희학,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와 '이방계집'의 번역 문제: 잠언 2장과 5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1(2007), 7-33.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9).  
원제는 J.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Paris: Gallimard, 1996).
- 장일선, 『구약성서와 현대생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미형, "레위기 18장의 성행위 금령 연구", 『구약논단』 23(2007), 120-146.
- 주진오 외, 『한국여성사 깊이 읽기』(서울: 푸른역사, 2013).
- 천사무엘, "잠언에 나타난 음녀의 정체성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2011), 5-26.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정금나, 김은정 역), (서울: 삼인, 2002). 원제는 Kathleen L.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6).
- 한스 발터 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문희석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96). 원제는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0).
- 한스 페터 뒤르, 『음란과 폭력: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의 역사』(서울: 한길사, 2003). 원제는 Hans Peter Duerr, *Der Mythos vom Zivilisationsprozeß 3. Obszönität und Gewalt*(Frankfurt: Suhrkamp, 1993).
- 허호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

- 향인가?», 「장신논단」38 (2010), 237-260.
- Albertz, R. and Schmitt, R., *Family and Household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Levant*(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Aloso-Schökel, L., "Sapiential and Covenant Themes in Genesis 2-3", J. L. Crenshaw (ed.),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Wisdom*(New York: Ktav, 1976), 468-480.
- Arnold, M., Dahan, G. et Noblesse-Rocher, A., (eds.), *La s œ ur-épouse*(Genèse 12, 10-20) (Lectio Divina 237; Paris: Cerf, 2010).
- Bons, E., et Legrand, Th., *Le monothéisme biblique: Évolution, contextes et perspectives* (Lectio Divina 244; Paris: Cerf, 2011).
- Comte-Sponville, A., *Le sexe ni la mort: trois essais sur l'amour et la sexualité*(Paris: Albin Michel, 2012).
- Cook, J., "אִשָּׁה זָרָה (Proverbs 1-9 Septuagint): A Metaphor for Foreign Wisdom?", *ZAW* 106(1994), 458-476.
- Davidson, R. M., *Flame of Yahweh: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7).
- Day, J., "Adulterous Jerusalem's Imagined Demise: Death of a Metaphor in Ezekiel XVI", *VT* 50(2000), 285-309.
- \_\_\_\_\_,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JSOTS 2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Dever, W. G.,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2005).
- Frymer-Kensky, T., "Law and Philosophy: The Case of Sex in



- the Bible", *Semeia* 45(1989), 89-102.
- \_\_\_\_\_, "Sex and Sexuality", ABD 5, 1144-1146.
- \_\_\_\_\_, *In the Wake of the Goddesses: Women, Culture and the Biblical Transformation of Pagan Myth* (New York: Fawcett Columbine, 1992).
- Garr, W. R.,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Humanity, Divinity, and Monotheism* (Leiden - Boston: Brill, 2003).
- Goodfried, E. A., "Prostitution", ABD 5, 505-510.
- Granrose, J. T., "Normative Theology and Meta-Theology", *HTR* 63 (1970), 449-451.
- Greenberg, M., "Biblical Attitudes toward Power: Ideal and reality in Law and Prophets", E. B. Firmage, B. G. Weiss and J. W. Welch (eds.), *Religion and Law: Biblical-Judaic and Islamic Perspectives*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01-112.
- Healey, J. P., "Fertility Cults", ABD 2, 791-793.
- Keel, O., and Uehlinger, C.,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trans. T. H. Trapp (Minneapolis: Fortress, 1992).
- Kern, L. J., *An Ordered Love: Sex Roles and Sexuality in Victorian Utopia: The Shakers, the Mormons, and the Oneida Communit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Lang, B., "No Sex in Heaven: The Logic of Procreation, Death, and Eternal Life in the Judaeo-Christian Tradition", A.

- Caquot, S. L. Gasse, M. Tardieu (eds.), *Mélanges bibliques et orientaux en l'honneur de Mathias Delcor* (AOAT 215; Neukirchen-Vluyn: Neukirchen, 1985), 237-253.
- Loader, W., *The Septuagint, Sexuality, and the New Testament: Case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LXX in Philo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2004).
- Marx, A., "Sacrifice pour les péchés ou rite de passage? Quelques réflexions sur la fonction du 'hatta't'", *RB* 96(1989), 27-48.
- \_\_\_\_\_, "L'impureté selon P", *Bib* 82(2001), 363-384.
- McDannell, C., and Lang, B., *Heaven: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Milgrom, J., "Sin-Offering or Purification Offering", *VT* 21(1971), 237-239.
- \_\_\_\_\_, *Leviticus 1-16*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 Neal, M. A., *A Socio-Theology of Letting Go: The Role of a First World Church Facing Third World Peoples* (New York: Paulist Press, 1977).
- Pitt-Rivers, J., *The Fate of Shechem or the Politics of Sex: Essays in the Anthropology of the Mediterrane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Sheppard, G. T., *Wisdom as a Hermeneutical Construct* (BZAW 151; Berlin: W. de Gruyter, 1980).
- van der Toorn, K., "Cultic Prostitution", *ABD* 5, 510-513.
- Trible, P.,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78).

Uehlinger, C., "Cantique des cantiques", T. Römer, J.-D. Macchi et  
C. Nihan (éds.), *Introduction à l'Ancien Testament*(Genève:  
Labor et Fides, 2009), 619-631.

검색어

성

자본

권력

메타신학

성윤리

## Sex, Capital, and Power Meta-Theology on Sexuality

Sun-Jong Kim, Dr. en théo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Sexuality is essential to human beings. Human history began and has been preserved by sexual activities. In a narrow sense, sex satisfies on of the basic desires and pleasures of the creatures, and in a broad sense it brings them security and happiness in relation to the family system. However, when sexuality is abused, many problems arise. Sexuality concerns not only an individual but also a community.

[www.kci.go.kr](http://www.kci.go.kr)

How sexuality is treated in theology? Sexuality is not a main topic of theology, being compared with the other discipline. Although biblical studies deal with the issues related to sexuality, they are limited to specific subjects and the biblical scholar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hurch does not touch the issue of sexuality. It seems to put a taboo on the subject. The Bible considers sexuality as a source of happiness and holiness (Gen 2; Lev 18-20; Song) as well as that of evil (Deut 22:21), but the church sometimes takes an ambivalent attitude to sexuality. Christians have a choice of two extremes, either secretly indulging in sex or living abstinent live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theology of sexuality in the Old Testament in a holistic manner. Sexuality shows an aspect of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in that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y are closely bound up with capital and power through sexuality. Written in an ancient language, the Bible is not an old document that is abrogated today. But it can serve as the rules of life. Therefore, we have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solve sexual problems brought up in the real life.

### **Keywords**

Sexuality

Capital

Power

Meta-Theology

Sexual Ethics

- 투고일: 2017년 4월 21일
- 심사일: 2017년 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8일

[www.kci.go.kr](http://www.kci.go.kr)